

키프로스(Cyprus) 분단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
: 한반도 통일에 주는 성찰

차문석
(통일교육원)

키프로스(Cyprus) 분단의 역사적 구조와 현재 : 한반도 통일에 주는 성찰

차 문 석 (통일교육원)

목 차

- | | |
|-----------------------|-----------------------|
| I. 서론 | IV. 키프로스 통일을 위한 노력 |
| II. 키프로스의 역사와 키프로스 문제 | V. 키프로스와 한반도: 통일에의 성찰 |
| III. 키프로스의 분단과 분단 구조 | |

국문요약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키프로스(Cyprus)는 1974년 분단이 된 후 43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역사 특수성, 민족 및 종교 갈등 등의 이유로 분단되었다.

키프로스의 분단은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분단과 함께 분단 사례로 주목받아왔다. 현재 키프로스 분단의 역사구조와 현재의 분단 상황은 한반도 맥락에 대단히 중요한 성찰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분단과 한반도 통일에 대

한 대단히 근본적인 성찰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서 키프로스의 분단과 현황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아카이브로서 발굴하였다.

현재 남북 키프로스 주민들은 서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적대와 갈등의 배경,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극복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작업이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주고 있다.

* 주제어: 키프로스, 분단, 한반도 통일, 키프로스 문제

I. 서론: 프레임(Frame) 설정과 연구 방법

지중해의 동북(東北) 방향에 위치한 아름다운 국가 키프로스(Cyprus), 그리스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비너스)가 태어난 신비의 장소이자 셰익스피어 비극(悲劇: 오셀로)의 배경이기도 한 이 키프로스는 섬나라¹⁾이자 ‘분단 국가²⁾이다. 신비와 비극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가 키프로스는 1974년에 실질적으로 분단되어 올해로 43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키프로스는 의외로 지금까지 같은 분단 국가인 한국 사회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키프로스는 대단히 낮은 존재이다. 그 결과이자 또 그것의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키프로스 관련 연구는 한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³⁾ 키프로스는 한국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신문이나 저널에 등장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사실상 키프로스 ‘분단’과 키프로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는 학술적 주제가 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키프로스 분단(혹은 키프로스 문제)을 다루려는 이유는 남북 키프로스가 한반도의 남북한과 유사한 분단 체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키프로스의 분단과 키프로스 문제를 한반도에 호출하여 분단 및 통일 문제에 유용한 성찰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남북 키프로스와 남북한은 분단의 계기와 역사, 양자 관계의 진행, 남북 통일의 이유와 전망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겠지만 특정한 방식과 지향을 가지고 남북 키프로스 문제를 한반도를 경유시켜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안나 카레니나(Anna Karenina)의 법칙⁴⁾에 기대어 말하자면, 키프로스와 한반도 양 사례가 만약에 통일에 성공했다면 그 이유는 동일했겠지만,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이 다양한 이유들을 좀 더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키프로스를 경유해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프레임(Frame) 설정: 키프로스 ‘문제’ 혹은 키프로스 ‘분단’

일반적으로 지중해 국가 키프로스와 관련된 사항들을 언급할 때 ‘키프로스 문제(Cyprus problems)’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키프로스 문제라는 용어에는 한반도 문제⁵⁾라는 용어가 갖는 외연처럼 다양한 의미들과 현상들이 포괄되어 있다. 키프로스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과 현상들이 융합되어 외부에서 바라보는 키프로스라는 존재론이 구성된다. 이것은 키프로스의 외생적(外生的)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키프로스에게 ‘분단국’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른바 키프로

1) 유럽의 지리학에서 보면 유럽 동남부 지중해상에 존재하며, 지중해의 동북쪽에 존재한다. 면적은 9,251km²이며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20만 명이 거주한다. 수도는 니코시아(Nicosia)이다.

2) 1974년에 분단되었고, 키프로스의 남쪽 2/3는 키프로스공화국이며, 북쪽 1/3은 北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다.

3) 한국에서 학위 논문으로 처음 연구된 것은 1986년 우덕찬의 “사이프러스 문제와 터키의 대미소관계(1964-1974)”,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였다. 우덕찬 이후의 후속 연구는 거의 없다.

4)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인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에서 힌트를 얻어 진화생물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G. Diamond)가 언급한 이론이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충, 균, 쇠』(서울: 문학사상, 2005).

5) 한반도 문제란 일반적으로 분단 및 통일 문제, 북한 핵문제, 정전체제 문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다.

스 문제라고 할 때 크게는 키프로스의 영유권을 둘러싼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 사이에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지중해 지역의 갈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분단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 ‘키프로스 문제’란 광범위한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정치학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져 종국적으로 ‘분단 문제’로 읽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키프로스 문제를 남북 키프로스라는 ‘분단’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키프로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실상 키프로스 문제를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키프로스 ‘분단’이라는 프레임(frame) 속에서 바라본다. 20세기의 일반적인 분단국가들과는 달리 키프로스의 분단은 20세기 냉전체제의 성립과 작동 과정과는 상관없이 발생했다. 따라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냉전체제의 종식, 脫냉전 그 자체가 키프로스 분단을 극복하는 기본적인 환경으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키프로스의 분단에는 오스만 터키 제국(Osman Turk Empire) 그리고 영국 지배와 관련된 수세기의 역사와 그 과정의 특수한 경험들, 그리스계와 터키계간의 민족적 갈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종교 또한 이러한 민족적 갈등과 결합함으로써 키프로스 분단의 주요한 균열 구조로 작동하였다. 키프로스 주민의 약 80%가 그리스정교를 믿는 그리스계 주민이며 나머지 약 20%는 터키계 무슬림이다. 이러한 키프로스의 분단을 ‘종교를 납치한(hijacking) 정치’⁶⁾의 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분단된 키프로스를 통해서 키프로스의 남북 분단의 요인(국제적 혹은 국내적), 분단의 균열 구조(종교, 민족, 문화 등),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남북 간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노력 등), 그리고 키프로스 문제가 한반도에 주는 성찰을 도출 및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기(時期) 범위는 키프로스가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 시기부터 21세기 현재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로 대별(大別)하고 대분류하기로 한다. 즉 ■ 키프로스 분단 발생 이전의 역사적 흐름, ■ 분단 과정과 분단 시기, ■ 20세기에 기울여졌던 다양한 통일 및 통합 노력의 시기, ■ 21세기의 통일 및 통합 노력의 시기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본 연구의 주제(主題) 범위는 키프로스의 분단의 역사적 과정, 남북 키프로스의 분단 구조, 남북 간의 통일 노력, 한반도에 제공하는 다양한 성찰에 집중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타로 등장하거나 소개되는 주제들에 대한 정리 및 언급은 상기(上記)의 주제에 대한 보완적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한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다. 키프로스의 남북 분단과 통일 협상, 2017년 현재까지의 각종 상황 등에 관련된

6) 『종교신문』 2015.10.7

다양한 문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기여하도록 한다. 하지만, 키프로스 사례에 대한 국내 연구 문헌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영어권 문헌 등 외국어권의 문헌들도 정리하는데 도움을 얻어야 한다.

둘째, 역사적 구조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키프로스]와 [한반도]의 ‘역사와 그 역사적 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역사-구조적 연구 방법에 기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키프로스의 남북 분단과 한반도의 남북 분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과정과 큰 틀에서의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역사-구조적 접근’은 20세기 세계 질서와 세계 체제, 지정학과 역사 등을 통해서 키프로스를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비교정치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지중해와 한반도의 분단과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비교정치학에서 동원하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키프로스 등 해외의 다양한 분단 사례들과 통일 노력의 사례들을 검토할 경우, 이를 한반도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필연적으로 ‘비교연구’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차이법]과 [일치법]은 연구 대상의 역사구조에서 ‘차이’를 탐색하고, ‘일치’를 탐색하여 이를 연구 대상의 비교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다. 키프로스 분단과 한반도 분단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를 제공할 ‘차이’와 ‘일치’를 추적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성찰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한다.

II. 키프로스의 역사와 키프로스 문제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냉전 체제가 들어서면서 분단된 국가들⁷⁾과는 달리, 키프로스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지중해의 지정학과 지경학을 포함), 민족적 갈등, 종교적 갈등 등으로 인해 분단되었다.⁸⁾

현재 키프로스의 정식 명칭은 키프로스공화국(Republic of Cyprus)이다. 터키 남쪽 지중해 상에 위치하며 면적은 9,251 km²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20만 명이다. 민족 구성을 보면, 그리스계 주민이 77%, 터키계 주민이 18%, 영국계 주민이 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도 그리스어, 터키어, 영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종교는 그리스정교가 75%이고 이슬람교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 구성과 종교 구성은 종국적으로 키프로스의 분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7) 한국, 중국(대만 포함), 베트남 등이 2차 대전 이후 분단되었다. 이들은 또한 침략 전쟁을 개시한 국가가 아님에도 분단되었다.

8) 우덕찬, “키프로스 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9권 2호(2008), p.34.



키프로스의 분단은 현상적으로 말하면, 1974년 터키의 군대가 키프로스를 침공하여 현재의 남북 키프로스로 분리되었던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北키프로스에 터키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국제법적으로는 南키프로스만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주변에 위치한 터키와 그리스, 영국은 유사시 키프로스에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로서 21세기 현재에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키프로스의 상황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여기서는 먼저 키프로스의 ‘역사적 존재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1. 키프로스 전사(前史): 오스만 터키(Osman Turkey) 제국과 키프로스

키프로스는 지중해의 가장 중요한 섬 중의 하나였다. 전략적 중요성뿐 아니라 동서를 잇는 교역의 중개지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고통을 받았다. 1960년대에 키프로스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다양한 국가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즉, 미케네, 이집트, 페르시아, 비잔틴, 프랑크, 베네치아, 오스만 터키, 영국 등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다.⁹⁾ 사실 키프로스 문제는 키프로스 내의 그리스계와 터키계 사이의 영유권 갈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키프로스 문제의 기원은 오스만 터키의 키프로스 지배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 경과를 간략하게 추적해 본다.

1517년 오스만 터키는 맘루크(Mamluk) 왕조를 붕괴시키고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지중해로 진출하였으며, 1571년에 당시 강력한 해양세력 베네치아로부터 키프로스를 점령하면서 지중해 재해권을 장악했다. 오스만 터키는 키프로스 점령 후 밀레트 시스템(Millet System)¹⁰⁾을 적용함으로써 그리스계 주민들에게 자치를 허용했다.¹¹⁾ 그런데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그리스계

9) Esmer, Ahmet, Sukur, “Cyprus Past and Present”, *Turk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1962), pp.36-46.

10) 밀레트 시스템이란, 오스만 터키 제국에 편입된 민족들에게 종교적 문화적 자치를 부여하면서 술탄(sultan)을 정점으로 하여 결집시켰던 제도를 말한다. 이희수, 『터키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p.346.

11) 따라서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계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으며 정교회의 대주교는 세속적 지도자로서

의 그리스 민족성(Greekness)을 유럽 세력들이 반대하였고, 오히려 오스만 터키가 그리스 민족성에 대한 수호자 역할을 했다.¹²⁾ 이런 연유로 오스만 터키인들이 키프로스로 이주해 올 때에도 그리스계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¹³⁾ 이후 3세기에 걸친 오스만 터키 지배기에 그리스계와 터키계는 서로 동화가 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1830년 그리스가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하면서 키프로스 운명에 새로운 격동을 야기했다. 그리스 민족주의자들은 영토를 회복하여 메갈리 이데아(Megali Idea)¹⁴⁾를 실현하기 위해 脫오스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실지(失地) 회복을 목표로 하는 에노시스(Enosis: 그리스어로 併呑)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 운동을 통해 크레타(Crete)를 포함한 많은 섬들을 병합하였다.¹⁵⁾

그러나 키프로스에는 영국이 진출하였다. 당시 인도까지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던 영국의 입장에서 키프로스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영국은 1877년 오스만 터키와 키프로스 협약(The Cyprus Convention)을 체결하였다. 만약 러시아가 침략한다면 영국이 오스만 터키를 보호하는 조건을 넣어, 결국 1878년 키프로스를 획득했다. 그러나 키프로스에 대한 권한은 오스만 터키에 계속 있었고 1923년 로잔느 조약(The Treaty of Lausanne)이 체결됨으로써 키프로스는 영국의 식민지로 변했다.¹⁶⁾ 하지만 키프로스 섬에 거주하던 그리스계의 키프로스인들(키프로스 인구의 약 75%)은 키프로스 섬을 그리스의 영토로 인식하면서 영국 식민지에 대항하였다. 반대로 이 섬에 거주하던 터키계 키프로스인들(키프로스인구의 약 25%)은 영국이 떠나면 키프로스가 오스만 제국에 다시 병합될 것으로 생각했다.¹⁷⁾

키프로스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와 오스만 터키 제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갈등을 지속하였다. 양 진영은 특히 크레타섬(Crete)¹⁸⁾의 영유권을 놓고 전쟁을 치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스는, 당시 몰락하고 있어 ‘유럽의 병자’(the Sickman of Europe)¹⁹⁾라는 별명을 얻고 있던 오스만 터키 제국을 공격했다. 이리하여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고 터키공화국이 성립하였다.

의 역할도 하였다.

12) 1511-71년의 프랑크, 베네치아 지배 시기에 유럽 세력들은 그리스 정교를 탄압하면서 로마 카톨릭적 관습을 이식시키려 했다. 하지만 오스만 터키는 이러한 탄압에서 오히려 그리스계를 보호해 주었고 그리스정교를 부활시켜 주었다.

13) Luke, Harry, *Cyprus under the Turk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1), pp.13-16. 우덕찬, p.73에서 인용.

14) 메갈리 이데아는 실지 회복을 통해 비잔틴 제국을 재건하려는 그리스인들의 이상을 말한다. 특히 당시 ‘유럽의 병자’(the Sickman of Europe) 오스만 터키의 약화를 이용해서 자국 주민이 거주하는 지중해 지역의 섬들을 병합하려는 에노시스(Enosis) 운동을 전개했다.

15) 그리스는 1830년에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한 뒤 1950년까지 지중해에서부터 에게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계 주민들이 거주하던 대부분의 도서를 그리스에 병합시키는데 성공했다. 우덕찬, 앞의 글, p.74.

16) Ayoob, Mohammed, ed., *Conflict and Interven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Croom Helm LTD), 1981, p.107.

17) Tzimitras, Harry, and Mete Hatay(2016), “The Need for Realism: Solving the Cyprus Problem through Linkages Politics”,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10/turkey_20161005_cyprus_problem.pdf

18) 그리스의 13개주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며, 지중해에서는 5번째 큰 섬이다.

19) 19세기 후반 열강과의 전쟁에 계속 패배하여 쪼그라든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유럽의 병자라고 부르면서 유래했다. 『경향신문』, 2006.4.12.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키프로스 공화국'의 수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확산되었던 반제국주의와 민족자결주의의 흐름은 그리스계 주민들에게 에노시스 실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공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영향력이 하락하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키프로스에 대한 영국의 집착은 더 강해졌다. 급기야 영국은 그리스의 에노시스를 막기 위해서 터키계와 공동의 전선을 실행해 나가게 되었다.

그리스계는 에노시스가 영국과 터키계의 저항에 직면하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1954년 그리스계는 키프로스 문제를 UN에 상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국제사회의 반제국주의 흐름을 이용해 키프로스 문제를 국제화시켜 국제 여론을 그리스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이 문제가 NATO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고민하면서 키프로스의 현상유지를 선호하였고, UN에 압력을 넣어 그리스의 에노시스 요구를 분쇄하였다.

이후 그리스계는 그리스가 후원하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테러활동을 전개했다. 1955년 키프로스내 영국인 대상의 테러를 시작으로 터키계 주민들에게도 테러를 감행하였다.²⁰⁾ 이에 터키계에서도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지하조직²¹⁾을 구성해 공격했고 나아가 영국에게 키프로스의 분할(taksim)을 요구했다. 그리스계의 테러가 지속되자 터키정부는 키프로스 문제에 대해 종래의 태도²²⁾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을 선택했다. 당시의 터키국민들도 “분할 아니면 죽음”(Ya taksim, Ya olum)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터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²³⁾

사태가 악화되자, 영국은 1955년 그리스와 터키의 대표를 초청해 영국-그리스-터키 3자가 테이블에 앉는 런던회의(the London Conference)를 개최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1956년 ‘레드클리프 안’(the Radcliffe plan), 1958년 ‘맥밀란 안’(the Macmillan plan) 등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그리스와 터키 양국의 입장 차이로 실패했다.²⁴⁾ 이후 그리스와 터키의 관계가 악화되어 NATO의 대소련 방위선이 취약하게 되면서 미국과 NATO동맹국들이 개입하였다. 이들은 그리스와 터키가 직접협상을 하도록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한편 1950년대 후반에 영국의 對지중해 전략이 변화²⁵⁾함에 따라 키프로스의 주권을 현지 주민에게 이양시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그리스와 터키 양국은 1958년 외무장관 직접 회의를 필두로, 같은 해 2월 11일에는 그리스 카라만리스(Karamanlis) 수상과 터키 멘데레스(Menderes) 수상이 취리히협정(Zurich Agreement)을 통해 공화국 수립을 결정하였다. 같은 해 2월 19일에 영국, 그리스, 터키, 그리고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대표들이 런던에 모여 취리히협정을 확인하는 런던협정(Lond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후 이 두 협정에 근거하여 공화국 현

20) 1955년 그리스가 파견한 급진 에노시스주의자 그리바스(Grivas)가 만든 EOKA(Ethniki Organosis Kypriou Agoniston: National Organization of Cypriot Fighters)는 테러활동의 선봉이었다.

21) TMT(Turk Mukavemet Teskilati: Organization of Turkish Resistance)가 터키계가 만든 테러조직이다.

22) 터키는 키프로스 문제를 이전에는 영국의 내부문제로 인식했으며, 영국이 쉽사리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덕찬, 앞의 글, p.75.

23) 우덕찬, “사이프러스 문제와 土耳其의 對美蘇關係(1964-1974)”, 한국외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p.9-10.

24) Bilge, Saat, “The Cyprus Conflict and Turkey”, *Turkey's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1950-1974*, edited by Kemal H. Karpat(Leiden: E.J. Brill, 1975), pp.145-148.

25) 영국은 수에즈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이후 지중해 전략을 수정하였다.

법이 제정되었고, 1960년 8월 16일에 키프로스공화국이 선포되었다.²⁶⁾ 이로써 82년간의 영국의 식민지배는 종식되었다.

이렇게 선포된 키프로스공화국에서는 그리스계가 대통령을 맡고 터키계가 부통령을 맡는 체제였고, 장관직과 관료 조직의 70%와 30%가 각각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에게 할당되었다. 요직에 해당하는 국방, 외교, 재무장관 가운데 한 자리는 터키계에 할당되었다. 국회의원 비율도 그리스계와 터키계 각각 70%와 30%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다만 군대만은 그리스계 60%, 터키계 40%로 조정되었다.²⁷⁾ 이 공화국에 대해서 영국, 그리스, 터키 등 3개국이 독립을 보장하였다.²⁸⁾

3. 키프로스 문제의 대두와 경과

(1) 헌법 시행의 문제

1960년에 키프로스공화국이 성립함으로써 식민 지배는 종식되었지만, 공화국 헌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놓고 그리스계와 터키계가 대립함으로써 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표〉 헌법 시행을 둘러싼 쟁점

	헌법 조항	내 용
헌법 시행의 쟁점	제173조	■ 수도 니코시아를 포함하는 주요 5개 도시에서의 분리자치체의 설정문제
	제12조	■ 공무원 임용에 있어 그리스계 7 터키계 3의 비율
	제129조	■ 군의 통합문제
	제178조	■ 의회에서의 단순과반수원칙 적용문제
	제50조	■ 부통령의 거부권

※ 출처: 우덕찬, “키프로스 문제의 歷史的 背景과 經過”, p.76으로부터 작성.

1963년 마카리오스(Makarios) 대통령은 그리스 정권의 급진화와 콩고사태에 대한 UN결정에 기반하여,²⁹⁾ ‘13개조 계획’의 헌법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은 종국적으로 키프로스에서 터키계를 내 고 에노시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터키계가 반대했고 터키정부도

26) 우덕찬, “키프로스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 p.76

27) 사실 이러한 할당 비율에 대해 터키계보다는 다수인 그리스계가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할당비율보다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김연철, 『협상의 전략』(서울, 후마니타스, 2016), p.532.

28) 『프레시안』 2016.11.29.(지중해에도 ‘분단 국가’가 있다); Tzimitras, Harry, and Mete Hatay(2016), “The Need for Realism: Solving the Cyprus Problem through Linkages Politics”,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10/turkey_20161005_cyprus_problem.pdf

29) 1963년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 에노시스주의자 파판드로우(Papandreu)가 집권, 콩고로부터 분리독립을 시도하던 소수민족 거주지인 카탕가주(Katanga province)가 UN의 제재를 받았다.

외무장관 에르킨(Cemal Erkin) 성명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영국 또한 분쟁을 우려하여 기존의 헌법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그리스계는 무력을 통한 헌법수정을 계획하고 에노시스 달성을 위해 準군사작전이라 할 수 있는 아크리타스 계획(Akritas plan)을 감행했다.³⁰⁾ 이로 인해 2만 명 이상의 터키계 주민들이 터키군과 UN군 보호지역으로 이주했고 부통령 자를 큐 (Fazil Kucuk)과 터키계 각료들은 마카리오스 정부로부터 퇴각하였다.

(2) 애치슨 안과 존슨 서한, 미국의 중재

키프로스 내전이 격화되자 1964년 UN안보리는 UN평화유지군의 창설과 중재자의 선정을 골자로 한 결의안 186호를 채택하였다. 중재자로 선정된 투미오자(Tuomioja: 前핀란드 수상)의 노력도 헛되어 돌아가고 내전은 지속되었다. 미국도 국무차관 조오지 볼(George Ball)을 존슨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영국, 그리스, 터키를 잇는 셔틀외교(shuttle diplomacy)를 통해 내전의 평화적 종식을 촉구했다.³¹⁾ 아래의 그림은 UN이 설정한 이른바 ‘그린 라인’(Green Line)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은 격화되었으며, 그리스-터키 관계는 악화되었고 터키는 키프로스 현상유지를 위해 군사적 침공을 표명하였다. 이럴 경우, NATO 가맹국인 그리스와 터키간의 전쟁으로 전개되고, NATO의 대공산권 방어망(對共防禦網)이 와해될 수 있었다. 미국은 터키를 강하게 압박했다. 존슨대통령은 터키 이뇌뉴(Inonu) 수상에게 이른바 ‘존슨 서한’³²⁾을 보내 터키의 무력행사를 막고 터키의 침공을 막았다. 이후 미국이 중재하여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었고 ‘애치슨 안’(Acheson plan)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내전을 종식시키는데 합의를 보았다.

30) 그 결과 1,000명의 터키계와 최소 200명의 그리스계 주민들이 사망. 또한 10만 명의 터키계 키프로스 주민들이 영국으로 도피. 이에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보내어 두 민족을 분리시켜 관리하게 했으며 수도인 니코시아(Nicosia)도 유엔이 관리하는 녹색선으로 분할되었다.

31) Adams, Thomas & Cottrell, Alvin, *Cyprus between East and West* (Baltimore: the John Hopkins Press, 1968), pp.61-62.

32) 이것이 바로 ‘존슨서한’(Johnson’s letter)이다. 이 서한으로 인해 터키와 미국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다. 이후 터키는 소련권과 관계를 개선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 애치슨 안의 내용

- 카르파스(Karpas) 반도의 동북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그리스로 병합
- 카르파스 반도의 동북부는 터키에 병합 혹은 터키계의 자치국 수립

1967년 제2차 위기가 발생했다. 그리스계가 터키계 주민 거주지를 공격하여 내전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에 터키 정부는 그리스에 대해 4개항의 최후통첩을 발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키프로스에 대한 침공을 실행에 옮길 것을 선언하였다.

■ 터키의 최후통첩

- 그리스계 국민군 해체 / 키프로스 밀입국한 그리스군(1천2백 명) 본국소환
- 터키계 주민지역의 자치행정권 부여
- UN평화유지군 증설
- 터키계 주민 보상

이에 다시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 이번에는 압력이 아니라 설득 방법을 통해서 터키측을 달랬다. 존슨의 특사 싸이러스 밴스(Cyrus Vance)가 중재하여 그리스가 터키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인 면서 터키는 침공을 철회하였다.³³⁾ 이 제2차 위기는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터키계는 거주지에서 자치행정을 개시했으며, 그리스계와 터키계가의 직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 협상은 제3차 위기가 발생하는 1974년까지 지속되었다.³⁴⁾

4. ‘키프로스 전쟁’과 남북 분단

1974년, 제3차 위기가 발생했다. 이 3차 위기는 기존 상황의 다양한 변주곡 위에서 발생했다. 키프로스 마카리오스의 ‘에노시스’에서 ‘非동맹주의’로의 전환, 1973년 그리스 군사정권 수립 등이 그것이다. 군사정권은 그리스 국내정치적 불만을 키프로스 문제 해결을 통해 표출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1974년 7월 키프로스 주둔 그리스군과 EOKA를 사주하여 마카리오스 정부를 축출하였다. 대신 과격 에노시스주의자 니코스 샘슨(Nicos Sampson)이 키프로스 대통령직을 맡았다.

이 직후 키프로스공화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터키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그리스계 쿠데타 정권을 내몰고 키프로스 섬의 절반을 점령하였다. 원래 터키의 에제비트(Ecevit) 정권은 키프로스의 현상유지를 위해 조약에 규정된 의무대로 행동하려고 했다. 따라서 터키는 영국에 키프로스를 함께 침공할 것을 제의했으나 영국이 반대하자 3개 여단 병력으로 침공을 감행하였다.³⁵⁾ 이것이 ‘키프로스 전쟁’이다.³⁶⁾ 키프로스 전쟁으로 인하여 약 15만 명의 그리스계 주민

33) Ehrlich, Thomas, *Cyprus 1958-196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p.111-112.

34) Bolukbasi, Suha, “The Cyprus Dispute and the United Nations: Peaceful Non-Settlement Between 1954 and 1966”,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30(1998). p.420.

들이 북부에 있는 고향을 등지고 남부로 이주했으며 반대로 약 5만 5천 명의 터키계 주민들이 남부에 있는 고향을 떠나 북부로 이주하였다.³⁷⁾

이 전쟁으로 그리스에서는 군사정권이 붕괴되었고 민간정권이 출범했다. 키프로스에서는 마 카리오스가 대통령직에 다시 돌아왔다. 또한 이 전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제네바회담(Geneva Conference)³⁸⁾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담은 실패하였다. 이 회담에서 터키는 연방제를 주장 하면서 키프로스 내에 두 개의 자치국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그리스는 연방제가 키프로스 분할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터키는 1974년 8월 제2차 침공을 감행해 키프로스 북부지역을 점령했다. 터키가 점령한 지역은 키프로스의 총면적 중 35%에 해당했다. 터키가 북부지역을 장악하자 약 20만 명의 그리스계 난민이 발생하였다. 터키가 세력균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하지만, 터키의 이 2차 침공은 현재까지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³⁹⁾

Ⅲ. 키프로스의 분단과 분단 구조

현상적 혹은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키프로스 분단은 키프로스 전쟁 직후인 1974년에 시작되었다. 1974년 키프로스의 분단 이래로 국제사회는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직접적인 협상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결실을 얻지 못했다.

터키계는 1981년에 그리스계가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키프로스 문제를 UN에 상정하자 1983년에 北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he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유엔결의안 541호를 채택하였다. 이후 그리스계와 터키계 간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84년 UN 사무총장 케야르(Cuellar)가 서틀외교를 통해 직접협상을 중재하였지만, 이것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1. 키프로스 문제 관련,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입장

키프로스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기본적인 입장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그리스계는 당연히 터키의 침공은 불법이며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의 1차 침공은 예외로 하더라도 2차 침공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터키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터키인들이 키프로스로 이주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35) Evriadiades, Marios L., "The Problem of Cyprus", *Current History*, Vol.16 (January 1976), p.39.

36) 한국전쟁 이후 터키가 군대를 해외로 파병한 두 번째 사례가 키프로스였다.

37) 북 키프로스 정부는 당시 남쪽으로 이주한 그리스계 주민들의 부동산을 터키계 주민들에게 불하하였다. 이것은 현재 키프로스 통일 문제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38) 제1차 제네바회담, 1974년 7월 25일, 제2차 제네바회담, 1974년 8월 9-20일.

39) 유엔총회는 터키군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3212호를 1974년 11월에 채택하였다.

〈표〉 키프로스 문제에 대한 양계의 입장

진영	기본 입장
그리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터키의 침공은 불법, 이전 상황의 복귀 주장 ■ 제2차 군사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음 ※ 유엔과 국제사회는 그리스계 정부를 키프로스 합법정부로 인정, 터키계에게는 경제제재 부여. ■ 터키 점령군 철수, 터키인들의 키프로스 이주 반대. ■ 그리스 난민 문제의 우선적 해결 요구
터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프로스분단은 그리스계의 헌정파괴가 원인 ■ 터키계와 그리스계가 동등한 주권자

※ 출처: 이정록, 『키프로스 분쟁』 푸른길, 2005; 크리스토프 히친스, 『키프로스』, 아침이슬, 2001; 조상현, “그리스-터키 속적의 무대, 키프로스 분쟁”, 『통일한국』 378권, 2015; 조상현, “변수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본 키프로스 분쟁”, 『한국군사학논총』, 10권, 2016; 우덕찬(2008) 등 에서 정리

반면에 터키계는 키프로스가 분단되고 터키가 군사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그리스계가 헌정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터키의 군사 개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터키계와 그리스계가 동등한 주권자로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2. 양계의 통일 방안: 주장과 대립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한 대립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타산지석의 교훈과 역지사지의 교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양계의 통일 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존재한다.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 공동체는 1977년 UN사무총장 발트하임(Waldheim)의 중재 하에 개최되었던 마카리오스-텐크타쉬 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합의하였다. 그것은 남북 키프로스가 통일되었을 때 취하는 국가형태에 대한 합의였다. 이 회담에서 그리스계와 터키계는 키프로스 통일 이후 통일국가의 새로운 국가형태는 이중지구(bionality)로 구성되는 연방제 형태라는데 합의를 했다. 이러한 합의는 1979년의 키프리아노우(Kyprianou)-텐크타쉬 회담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1992년 UN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가 내놓은 조정안 ‘아이디어 세트’(The Set of Ideas)⁴⁰)에도 이러한 이중지구 형태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터키계는 지난 1998년에 입장을 1990년대 초반까지 합의해 왔던 입장을 돌연히 바꾸어 연방제(federation)가 아닌 연합제(confederation) 모델을 내놓았다. 터키계에서는 통일 키프로스의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스위스 모델’과 ‘벨기에 모델’에서 찾고 있다.

40) 유엔이 제안한 100개 조항을 말한다. 터키계는 이중 91개를 수용하였지만 결국 반대하게 된다.

〈표〉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통일 모델

진영	통일 모델
그리스계	■ 2개의 민족, 하나의 정부의 연방제 국가형태
터키계	■ 1977/1979/1992년의 이중지구(연방제) 지지 ■ 1998년, 연합제 주장 ※ 2개의 민족, 2개의 정부의 연합제 국가형태

※ 출처: 우덕찬, “키프로스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2호(2008) 등에서 정리

이에 따라 UN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은 2002년 11월 11일에 새로운 조정안으로 스위스 모델의 연방제 안을 제시하였다. [키프로스 문제의 포괄적 해결에 관한 합의를 위한 기초(Basis for Agreement on a Comprehensive Settlement of the Cyprus Problem)]의 명칭을 가진 새 조정안은 지금까지 UN이 내놓은 안(案) 중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안이었다. 하지만, 2003년 3월에 개최된 헤이그회담이 결렬로 이 조정안에 대한 합의도 실패로 돌아갔다.⁴¹⁾ 게다가 2003년 4월 16일 그리스계의 독자적인 EU가입이 실현되자 키프로스 문제의 해결은 더욱 교착상태에 빠져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3. 키프로스의 분단 구조: 민족 분단과 종교 분단

키프로스의 脫식민역사, 영국의 지배, 그리스와 터키의 개입, 전쟁과 분단 등 ‘섬’ 키프로스에서 진행된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키프로스 분단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미지화하고 그 역사적 과정과 특징들을 도출하여 추상화 일반화하여 본다.



41) Azar, Edward E.,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Dartmouth: Hampshire, 1990), p.18

먼저 키프로스 분단의 대외적 환경에서 중요한 역사적 경험은 첫째, 오스만 터키 제국과 영국으로부터의 식민 지배 경험이 가장 구조적이다. 오스만 터키의 지배와 영국의 식민 지배를 통해 키프로스는 강제적으로 국제정치에 편입되었고 국제정치의 동화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둘째, 그리스와 터키의 대립이 있다. 키프로스에서 70% 이상의 다수 인구를 점하고 있는 그리스계 주민들이 그리스 정체성과 그리스 국가와 연계되어 있다. 반면에 터키계 주민들은 터키적 정체성과 터키 국가와 연계되어 있다. 키프로스 분단에는 그리스와 터키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그리스와 터키의 대립은 키프로스 내에 존재하는 두 개의 공동체간의 전쟁을 실행시켰다. 역으로 키프로스 내의 두 개의 공동체간의 대립이 그리스와 터키의 군사적 개입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한 [키프로스 전쟁]은 마치 한반도의 [한국전쟁]과 같이 키프로스의 분단을 고착시켰다.

다음으로 키프로스 분단을 초래한 키프로스 내부 조건들에 대해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키프로스 분단은 키프로스 내의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들의 민족적 대립과 갈등, 키프로스 외부 환경(그리스 정부와 터키 정부)에 대한 반응과 대응 양상, 내부의 국내 정치적 맥락 등이 복잡하게 작동하면서 분단이 발생하였다.

먼저, 민족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 문제이다. 키프로스 내에는 서로 다른 민족적 계열이 분포함으로써 한국과는 달리 민족적 갈등이 존재한다. 그리스계 민족공동체와 터키계 민족공동체, 그리고 소수이지만 영국계 주민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의 상이한 민족 정체성은 키프로스를 융합시키기보다는 분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동일한 정체성을 외부(그리스와 터키)에서 발견하였다.

둘째, 키프로스 내의 종교적 차이가 민족적 정체성과 유합하여 내부 분단을 강화하였다. 그리스 정교를 믿는 그리스계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계의 갈등은 키프로스 내부의 종교 갈등의 구조이다. 이러한 종교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민족적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무력을 불사하는 충돌(1963-1974)로 전변하고 장기화되고 구조화되었다.



지금까지 언급된 키프로스의 분단 구조와 균열 구조는 복잡하고 다난했던 그 역사적 구조와 더불어 대단히 심각한 민족 문제와 종교 문제를 경유하면서 균열되어 있다. 따라서 20세기의 다른 분단 국가들보다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키프로스 통일을 위한 노력

1974년의 키프로스의 분단 이후, 21세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키프로스 내부(그리스계와 터키계를 포함)와 외부(그리스와 터키, 미국,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포함)의 통일 협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절차부심 과정들을 정리한다. 키프로스에 통일과 관련된 자체적인 협상은 1977년의 통일 협상, 1979년의 통일 협상, 1986년의 통일 협상 등 지속되어 왔다. 1992년에는 유엔이 조정안을 제출했고, 1993년 남북 키프로스간의 신뢰구축 방안이 제시되고, 1994년 신뢰구축방안의 실행방안의 초안이 제시되었다. 이후에도 남북 키프로스 정상회담과 통일 협상은 지속되었다.

1. 국제 사회의 키프로스 문제 해결 노력

현재 키프로스에는 1964년 이래로 총 9개국의 병력으로 구성된 'UN평화유지군'(UNFICYP)이 평화정착을 위해 주둔해 있다. 제2대 총장 다그 함마숄드(Dag Hammarskjold)부터 제8대 총장 반기문에 이르는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과 그들의 특사들⁴²⁾이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⁴³⁾ 지금까지 이른바 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방안들이 제시되었다.⁴⁴⁾

대표적인 방안들로는 '레드클리프 안'(Radcliffe plan), '맥밀런 안'(Macmillan plan), '애치슨 안'(Acheson plan), 그리고 제5대 유엔 사무총장의 '페레즈 데 케야르 안'(Perez de Cuellar plan), 제6대 유엔 사무총장의 '부트로스 갈리 안'(Boutros Ghali plan),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코피 아난 안'(Kofi Annan plan)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4년 UN이 제안했던 '아난 안'(Annan Plan)이다. 2002년 유엔의 [키프로스 문제의 포괄적 해결에 관한 합의를 위한 기초]라는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2003년에 이를 '아난 안'(Annan Plan)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당시 UN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 아난 안은 역대 가장 건설적인 통일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남키프로스에서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무산되었다. 국민투표 직후에 키프로스공화국(남키프로스)은 EU에 가입했다. UN은 이 키프로스공화국을 키프로스섬의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키프로스섬 전체가 EU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고, 다만 북키프로스는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간주하고 있다.⁴⁵⁾

지금까지 UN이 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때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매우 간단하다. 지금까지 UN은 1974년 터키의 군사개입으로 발생한 남북으로 분단된 키프로스

42) 제6대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Boutros Ghali)가 파견한 특사로는 前 캐나다 수상 조 클락(Joe Clark), 제7대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파견한 특사로는 한국의 前 외무부장관 한승주를 들 수 있다.

43) 유엔이 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키프로스 통일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리스계와 터키계 간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과 이것이 그리스와 터키 간의 국가간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44) 우덕찬, "키프로스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 『중앙아시아 연구』 제8호, p.71.

45) Tzimitras, Harry, and Mete Hatay(2016), "The Need for Realism: Solving the Cyprus Problem through Linkages Politics",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10/turkey_20161005_cyprus_problem.pdf

의 현실을 국제기구로서의 유엔의 역할 부재에서 찾기보다는 그리스, 터키 정부의 후견 하에 놓여 있는 키프로스 내의 양계 공동체 지도자들의 역할 부재에 찾고 있다.⁴⁶⁾

개별 국가들이 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한 노력으로는 단연히 미국을 우선해서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는 역대 정권들이 조지 볼(George Ball), 싸이러스 밴스(Cyrus Vance), 클락 클리포드(Clark Clifford) 등의 특사를 파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2017년에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키프로스 정책에 관련된 움직임이 읽히지는 않고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키프로스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클린턴 행정부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키프로스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는데, 미국무성 내에 키프로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 조정국을 설치하였고, 두 명의 특사를 임명하였다. 나아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74년 터키가 키프로스를 침공할 때 실종되었던 미군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 대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키프로스 문제에 대해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던 그간의 배경에는 또 다른 차원의 설명이 존재한다. 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그러하겠지만 미국 또한 키프로스 문제의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해결을 원하고 있다기 보다는 키프로스 문제로 인하여 나토(NATO) 회원국가인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일어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 국가들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⁷⁾

2. 키프로스의 '현재'와 통일 전망

(1) 키프로스의 '2017년 현재'

이른바 '키프로스 문제'가 발생한 뒤 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들이 제출되었으나 문제 해결이 난망한 것이 현재의 키프로스 문제의 현실이다. 키프로스 문제는 키프로스를 구성하는 그리스 공동체와 터키 공동체간의 지향과 이익이 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매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분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키프로스를 구성하는 이 두 공동체의 배후에는 그리스와 터키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키프로스 문제를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간주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양 진영의 협상은 항상 교착상태에 빠져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양 진영의 타협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현재, 키프로스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남북의 키프로스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⁴⁹⁾

먼저, 남키프로스의 입장이다. 南北 키프로스의 분단 당사자이지만, 터키와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터키 및 북키프로스와의 분쟁 요소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영해 내에

46) B. Suha, "The Cyprus Dispute and the United Nations: Peaceful Non-Settlement Between 1954 and 1966",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30(1998), pp.411-412.

47) 우덕찬, "키프로스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 중앙아시아학회편, 『중앙아시아 연구』 제8호, 2003, p.72.

48) 우덕찬, 앞의 글, p.82.

49) Tzimitras, Harry, and Mete Hatay(2016), "The Need for Realism: Solving the Cyprus Problem through Linkages Politics", 앞의 internet site에서 정리

존재하는 가스광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키프로스의 입장이다. 북키프로스 또한 분단의 당사자이다. 현재 남키프로스 지역만이 UN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승인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EU와 유로존의 일부가 되어 북키프로스의 경제적 발전을 원하고 있다.

셋째, EU의 입장이다. EU는 키프로스의 영해에서 가스광이 개발되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키프로스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주 오랫동안 EU의 골칫덩이였던 키프로스 분쟁 지역을 없애게 되는 것이다.

넷째, 터키의 입장이다. 터키는 남키프로스뿐 아니라 EU와도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터키 자체의 EU 가입이 한층 더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⁵⁰⁾

다섯째,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통일된 키프로스가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 내에서 미국의 에너지 협력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일 키프로스는 난민 문제와 돈세탁 방지 문제 등에서 협력할 것이며, 양국이 모두 NATO 회원국으로서 그리스와 터키의 원한의 역사가 종말을 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키프로스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의 입장과 기대

국가 / 주체	입장과 기대
남키프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키프로스/터키 관계 개선 ■ 터키 및 북키프로스와 타협, 영해의 가스광 개발 참여
북키프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및 국제사회로부터 승인국 지위 획득 ■ EU 및 Euro-Zone의 일원, 경제발전 추구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프로스 영해 가스광 개발, 대러시아 의존 제거 ■ EU내 분쟁지역 제거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키프로스와 EU와의 관계 개선(EU 가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키프로스의 중동 내 에너지 협력국 ■ NATO 회원국 그리스와 터키의 원한 역사 종결

※ 출처: Tzimitras, Harry, and Mete Hatay(2016),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10/turkey_2016_1005_cyprus_problem.pdf을 참조하여 작성.

2017년 1월 12일, 키프로스 문제와 관련하여 제네바에서 평화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터키군의 주둔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은 회담이 결렬되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국제법적으로 정식 국가로 인정받은 남키프로스 공화국과 그리스는 북키프로스와 터키에게 터키군을 철수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7년 현재 북 키프로스에는 약 3만 5천명의 터키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편, 터키는 북키프로스가 자신에게 전략적 가치가 막대하기 때문에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⁵¹⁾

50) 터키와 EU의 관계는 사실상 키프로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그리스는 터키가 EU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키프로스 문제가 해결되면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협력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51) 『연합뉴스』 21017.1.13

(표) 2017년 1월, 남북 키프로스 평화회담에서의 양측 입장

국가 / 주체	입장
남키프로스	■ “우리는 北키프로스에 주둔하고 있는 3만 명의 터키군이 철수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아나스타시아데스(Nicos Anastasiades) 키프로스공화국 대통령)
그리스	■ “터키군이 계속 주둔하는 한 키프로스의 40년 분단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올바른 해결책은 분단을 초래한 점령군의 주둔이 제거되어야 한다”(니코스 코치아스(Nikos Kotzias) 그리스 외교장관)
터키	■ “터키군이 완전 철수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

※ 출처: 『연합뉴스』 2017.1.13.을 참조하여 작성.

한편, 2017년 6월 28일 스위스의 휴양지 크랑 몬타나(Crans-Montana)에서 남북 키프로스의 평화회담이 개최되었다. 20세기와 21세기 통틀어 남북 키프로스 간에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이번 회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네바를 오가며 남북 키프로스의 통일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터키계가 다수인 北키프로스에 주둔한 터키군의 철군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협상은 또다시 결렬되었다.⁵²⁾

지금 현재 키프로스의 평화 및 통일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커다란 난관은 터키군의 주둔과 안전보장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터키군의 철수는 사실상 키프로스와 그리스가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종의 ‘레드라인’(red-line)에 해당한다. 터키 측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키프로스에서 터키군을 완전 철수할 이유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힘든 것이다.⁵³⁾ 따라서 지금 현재로선 양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입장 조율이 없는 한 평화협상의 타결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남북 키프로스 정상 간의 평화 및 통일 협상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남북 키프로스 문제의 향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2017년 반기문 총장 후임으로 취임한 제9대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키프로스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 제출, 2017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키프로스 문제에 대한 정책 지향, 2018년에 예정되어 있는 남키프로스 대통령 선거, 터키와 EU의 관계 동학, 키프로스 영해의 가스광 채광 허가 문제 등이 그것이다.

키프로스공화국으로 승인된 남키프로스는 2013년까지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의 하나로 인정받았으나, IMF차원의 위기를 포함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반면에 北키프로스는 터키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⁵⁴⁾

52) 남키프로스 대통령(그리스계)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는 2017년 6월 26일 성명에서 “키프로스 문제를 풀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을 지니고 참석”했으나 “시대착오적 터키군 주둔 사태는 종결되어야 한다”고 언급.

53) 에르도안(R.T.Erdogan) 터키 대통령은 보수층과 무슬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터키군의 철수 문제에 대해 잘못 대응했다가는 우파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다.

54) Tzimitras, Harry, and Mete Hatay(2016), “The Need for Realism: Solving the Cyprus Problem through Linkages Politics”,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10/turkey_20161005_cyprus_problem.pdf

V. 키프로스와 한반도: 통일에의 성찰

여기서는 키프로스 분단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성찰들을 획득하려고 한다. 키프로스와 한반도 양 지역에서는 양자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반대로 양 지역 중 한 지역에서만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교훈을 도출한다.

1. 키프로스와 한반도, 분단 및 균열 구조

키프로스의 남북 분단 역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키프로스만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과 특수성을 보여준다. 키프로스 자체의 남북 지역의 구조, 남북 키프로스의 문화적 사회적 균열 구조는 한반도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키프로스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성찰을 얻기 위해서는 지중해의 키프로스와 동북아의 한반도의 분단이 갖는 역사구조적 맥락들을 직접 비교하기 보다는 맥락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1) 키프로스와 한반도 분단의 공통점

먼저 키프로스와 한반도 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을 짚어보자.⁵⁵⁾ 첫째, 남북 키프로스와 남북한은 남북으로 분단된 ‘분단 국가’라는 점이다. 둘째, 남북 키프로스는 수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렀으며, 남북한도 한국전쟁을 포함하여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경험했다. 이로써 키프로스와 한반도는 전쟁의 비극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반목과 대립이 남북관계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셋째, 키프로스와 한반도는 남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넷째, 전쟁으로 인한 이주와 탈주, 실향, 가족 상실 등 이산(離散)의 문제를 안고 있다. 다섯째,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키프로스가 북키프로스보다 경제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여섯째, 분단의 과정에서 외세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으며, 이로 인해 통일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남북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한다.⁵⁶⁾

<p>키프로스와 한반도의 공통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분단 국가 ■ 남북 전쟁의 경험 ■ 남북 군사적 대치 국가 ■ 이산(離散)의 문제 ■ 남키프로스와 남한의 경제적 우위(혹은 격차) ■ 분단과정과 통일과정에서의 주변 강대국 연계
---------------------------	--

※ 조상현, “변수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본 키프로스 분쟁”, 『한국군사학논총』 제5집 제2권(2016); 우덕찬, “키프로스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2호(2008)을 참조하여 작성.

55) 우덕찬, “키프로스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2호(2008); 조상현, “변수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본 키프로스 분쟁”, 『한국군사학논총』 제5집 제2권(2016)을 참조하였다.

56) 키프로스의 경우, 그리스, 터키, 영국 등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며, 한반도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2) 분단의 역사적 과정

키프로스의 남북 분단은 3세기에 걸친 오스만 터키의 지배, 연이은 영국의 식민 지배, 1960년 독립과 함께 진행된 남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의 갈등,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의 영국, 그리스, 터키 등 주변국과의 보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로부터 유래했다. 키프로스 분단은 [외부 + 내부 요인 ⇒ 내부 분단]으로 이어졌다.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도 또한 20세기 중반까지의 일본의 식민지, 1945년 脫식민지 과정과 강대국에 의한 분단, 해방 과정에서 '강대국 정치'(great power politics)의 실행, 한민족의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 고착화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반도 분단은 [외부 요인 ⇒ 내부 분단]으로 이어졌다.

(3) 분단의 '균열 구조'(cleavage structure)

키프로스의 남북 분단의 '균열 구조'는 다층적 균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키프로스 분단에는 민족 균열, 종교 균열, 언어 및 문화 균열 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첫째, 키프로스 내의 그리스계 민족과 터키계 민족으로 대별되는 민족적 분단의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그리스어와 터키어의 언어 및 문화로 대별되는 문화적 분단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교로 대별되는 종교적 분단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다층적 분단 균열 구조는 서로 융합되어 분단과 균열을 강화해 나간다.

한반도 남북한 분단의 균열 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일하다. 한반도 분단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한민족이 두 개의 공동체로 외세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20세기 냉전 시대의 이념적 분쟁과 갈등도 깊숙이 융합되어 있다. 이러한 한반도적 분단 균열 구조는 키프로스 균열 구조보다 미래의 통합 및 통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고 특정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키프로스 분단은 한반도와는 달리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립은 분단 발생에 개입되지 않았다. 남북의 키프로스는 모두 시장경제 질서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북한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남북한은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분단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4) 통합 및 통일에 대한 인지(認知)

남북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분단의 요인, 그리고 분단의 균열 구조의 차이에서 볼 때 키프로스와 한반도에서 통일에 대한 인지(認知)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전제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은 통일 무관심을 제외한다면 항상 분단의 지속보다는 높게 나온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키프로스와 비교하지 않는다. 다만 매우 흥미롭게도 남북 키프로스 주민들의 키프로스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양 지역의 통일에 대한 인지를 설명한다.

먼저, 북키프로스 주민들은 통일에 찬성하는 반면, 남키프로스 주민들은 통일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4월, 남북 키프로스에서 UN 통일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이다. 국민투표에서 北키프로스 주민의 약 65%가 통일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으며, 南키프로스 주민의 약 76%가 통일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다.⁵⁷⁾ 하지만 2007년 12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터키계 주민의 약 60%가 그리스계와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2개의 키프로스에 찬성하였다.⁵⁸⁾

다음으로 아랍권 위성방송인 알자지라(al-Jazeera)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2014년의 설문조사이다. 그리스계 503명과 터키계 502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신이 죽기 전 통일이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계는 58%, 터키계는 4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통일이 실패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계 74%, 터키계 60%가 실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⁵⁹⁾

남북 키프로스 간에 통일에 대한 인지가 정반대는 아니지만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키프로스와 한반도에서 남북의 통합 및 통일에 대한 감성(感性)과 인지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양 지역의 분단의 요인과 분단 균열 구조에서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다시 순차적으로 통일과 통합에 대한 양 지역의 전략과 대안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키프로스와 한반도의 분단 역사, 분단의 균열 구조, 그리고 통합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간단하게 비교해 왔다. 이러한 비교에 기반한 설명을 통해서 키프로스와 한반도 분단이 갖는 차이점과 공통점, 양 지역의 분단이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 등을 추출하고, 이러한 추출 작업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안 생산에 근본적인 성찰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2. 키프로스를 통한 한반도 문제 성찰

지중해에 위치한 분단 국가 키프로스가 한반도에 던지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향에서 수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키프로스 지역의 분단 사례를 통해서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여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과 그 역사적 구조, 통일 미래 비전이라는 맥락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

‘키프로스의 분단과정과 현재의 분단 상황’을 역사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좀 더 글로벌한 수준에서 그리고 보편성의 차원에서 성찰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역적 사례와 아카이브 제공할 수도 있다. 키프로스 사례는 지중해의 분단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역적 사례로서 기능할 수 있다.

키프로스 사례에 대한 연구는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인식 전환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키프로스 연구는 역사적 환경이 다르고 정치적 맥락이 다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인식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키프로스 사례는 통일 문제에서 통일의 다양

57) 김연철, 『협상의 전략』(서울, 후마니타스, 2016), p.542; 이정희, 구동회, 『세계의 분쟁지역』(서울, 푸른길, 2005); 마스다 다카유키 지음, 이상술 옮김, 『한눈에 보는 세계 분쟁 지도』(서울: 해나무, 2004).

58)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계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北키프로스에 대해 계속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우덕찬, “키프로스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2호(2008), p.48.

59) 『세계일보』 2014.7.21.

한 방법과 경로, 다양한 시간 개념(단기, 중기, 장기) 속에서 통일 문제를 고민하기, 추체험적 사례의 제공, 반면교사(反面教師)적 함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키프로스가 복잡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남북 키프로스 간에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하게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에게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키프로스 문제 혹은 키프로스 분단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초보적인 대안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에의 시사점을 찾으려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도의 대안적인 테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키프로스 및 남북한의 기능주의적 처방

이는 무엇보다도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성찰에 기반을 둔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들 간에 신뢰와 그에 기반한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정치 및 군사 분야보다는 非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를 개시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경제, 문화, 민간 교류 등은 대표적인 非정치적 분야로서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계기로 작용하여 키프로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키프로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주의적 성찰은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거나 통일 및 통합기반을 조성하는 문제에서 유사한 성찰을 제공한다. 이른바 ‘정치-이전’(pre-political)⁶⁰⁾이라는 틀 속에서 남북한 간에 풀기 어려운 정치적 군사적 문제보다는 경제 교류나 사회문화적 교류를 선행함으로써 향후에 정치 군사적 분야에서의 갈등 완화를 촉발하는 방향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대북한 정책에서 가장 설득력이 강한 정책 흐름이면서 역대 한국정부가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실행해 왔던 정책이기도 하다.

(2) 정체성 프로젝트: 키프로스 정체성(Cypriotism)과 한반도 정체성

키프로스 문제의 근본에는 키프로스 정체성의 부재(不在)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스계는 자신의 모국을 그리스로, 터키계는 자신의 모국을 터키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듯 그리스와 터키의 정체성을 각각 가지고 있는 한 키프로스 문제⁶¹⁾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북 키프로스는 정체성에서 그리스와 터키와 이제 결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중해의 독립적인 국가인 키프로스, 그리고 그 국민인 키프로스인이라는 정체성이 필요해 진다. 이것이 남북 키프로스 주민이 서로의 인종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키프로스인으로 통합될 수 있는 인식론이자 정체성(Cyprus identity)이라 할 수 있는 키프로스주의(Cypriotism)일 것이다.

키프로스 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축해 주는 정체성 생산이 중요하다. 남북한 통합을 위한 정체성은 남한 주민과 북한

60) 통합이론의 기능주의(functionalism)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선택하기 보다는 그것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제 부문, 즉 ‘정치-이전’(pre-political)의 부문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합리적임을 주장해 왔다.

61) 키프로스 문제를 단순히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갈등 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 키프로스의 분단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주민을 구별 및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임을 보장하고 인식할 수 있는 통합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역사를 함께 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넘어서는 제도적 장치와 철학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넘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한반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생산이 필요해 진다.

(3) 키프로스 외부의 군사적 연계 제거와 한반도 문제

남북 키프로스는 1960년 키프로스가 독립한 이래로 '런던 협정'에 따라 터키계는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계는 그리스와 군사동맹을 통해 안전보장을 받아왔다. 그러나 키프로스 문제라는 틀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동맹관계는 남북 키프로스의 안전보장이기보다는 상호간에 상대방 동맹에 의한 무력 병합이라는 공포를 생산해 왔다. 이러한 동맹관계는 상호 간에 군사적 침략에 대한 공포심을 바탕으로 불신을 확대했으며 이러한 불신은 다시금 군사적 동맹 강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따라서 그리스계와 터키계가 맺고 있는 군사적 동맹관계가 파기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을 지속될 것이다.

남북 키프로스의 군사동맹 파기 문제는 사고의 방향과 수준에 따라서 한반도 남북한 관계에서 매우 파격적인 성찰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키프로스 상황과 한반도 상황은 서로 질적으로 매우 상이한 환경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키프로스에 대한 성찰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다만 남북한 간에 군사적 갈등들을 제어하고 봉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4) 그리스-터키 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변국 문제

그리스계와 터키계가 정치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외부의 존재인 그리스와 터키가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남북 키프로스 문제는 내부적인 계기를 통해 해결되기 힘들다. 현재 그리스와 터키 간에는 대륙붕 개발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 소수 민족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 키프로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문제이다. 1953년 이래로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의 당사자가 남북한을 넘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고 있고, 이후의 정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각종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구조적인 관계 개선은 한반도 남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될 것이다.

(5) 키프로스 통일 협상과 관련된 의제의 해결과 한반도적 유추

사실상 현재까지 남북 키프로스 문제 해결과 남북 통일을 위한 협상에서 가장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상정해 보는 것도 한반도적 맥락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키프로스적 맥락에서

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들이 상정⁶²⁾될 수 있고 이 문제들은 한반도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다.

아젠더	키프로스		한반도
통일국가 형태 ⁶³⁾	그리스계	연방제 국가 하나의 주권을 갖는 통일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연합제)과 북측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연방제)의 존재
	터키계	연합형식의 통일국가, 구성국은 독립성 유지	
지도자 선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부통령 선출 문제가 분단 발생에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통합 맥락에서 고민
안전보장과 독립보장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그리스, UN 및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 및 독립보장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과 국제사회로부터 승인 ■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
영토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키프로스 간 영토 획정 문제 존재 (주로 南키프로스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간 영토 문제는 없음
재산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키프로스 분단시 쌍방으로 이주한 이후 재산권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간에 재산권 문제는 중요

※ 출처: Tzimitras, Harry, Mete Hatay(2016)이 제출한 문제와 필자가 제기한 문제를 종합하여 작성.

첫째, 남북 키프로스 통일협상에서 통일국가의 형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스계는 큰 틀에서 두 개의 구성 주를 가진 연방제 국가를 모델로 제시한다. 이 연방제 통일 국가는 시민권과 주권이 하나인 통일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⁴⁾ 반면 터키계는 통일국가는 국제적으로 하나의 주권을 갖지만, 키프로스 내에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성립함을 주장한다. 즉 각 구성국가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남북 키프로스의 통일 모델에 대한 대립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역사적으로 노정되어 왔던 문제이다. 즉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연합제안이 서로 주장되어 왔다.

둘째, 통일된 키프로스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분단 이전에는 대통령이 그리스계에서, 부통령이 터키계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결국 키프로스 분단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이상 이 문제는 현실적 제도적으로 해결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한반도 통일 시에도 이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출신의 메르켈 총리가 2017년 현재 4번이나 연임되었다.

셋째, 통일된 키프로스의 독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사실 北키프로스는 지금까지 터키로부터의 안전보장과 독립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왔다. 南키프로스의 경우, EU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과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결국

62) 2016년 Tzimitras, Harry, 그리고 Mete Hatay(2016)가 발표한 논문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출되었다. 위 3인의 논문, "The Need for Realism: Solving the Cyprus Problem through Linkages Politics"을 참조할 것.

63) 통일국가형태 문제는 남북 키프로스 간에 가장 심각한 입장차를 노정했던 문제이다.

64) 南키프로스와 北키프로스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두 공동체 사회이며 내부적으로만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가진다. 국가주권을 통일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국제법적 주체가 된다. 우덕찬, "키프로스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2호(2008), p.47.

통일된 키프로스의 독립보장 문제는 키프로스 통일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반도 통일 시 통일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중층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한국의 UN에서의 지위 문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등에서 중요한 노력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넷째, 통일 키프로스의 영토 확정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통일 협상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남키프로스는 지금도 북측 영토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북키프로스가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통일 협상에서 대단히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영토 확정 문제는 통합 및 통일 협상에서 골칫덩이가 아니다.

다섯째, 통일 협상에서 재산권의 문제도 남북 키프로스 간에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1974년 터키의 군사개입으로 키프로스공화국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그리스계 주민들은 남키프로스로, 터키계 주민들은 북키프로스로 대량으로 이주하였다. 이 때 이주한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터키는 북키프로스 지역에서 그리스계 주민들의 재산권을 북쪽에 거주하는 터키계 주민들에게 불하하였다. 이것은 향후 통일 협상에서 만만치 않은 난제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1946년의 북한의 토지개혁, 한국전쟁 시기의 피난 등으로 인해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실제로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양 지역에 토지 등이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미 진행된 독일의 통일 경험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키프로스의 해결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 김연철, 『협상의 전략』 후머니스트, 2016.
- 이정록, 『키프로스 분쟁』 푸른길, 2005.
- 크리스토프 히친스, 『키프로스』, 아침이슬, 2001.
- 조상현, “그리스-터키 숙적의 무대, 키프로스 분쟁”, 『통일한국』 378권, 2015.
- 조상현, “변수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본 키프로스 분쟁”, 『한국군사학논총』, 10권, 2016.
- 오종진, “신뢰구축 방안(CBMs)를 통한 분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키프로스 사례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9권 2호, 2008.
- 이병희, “사이프러스 인종갈등: 그 기원, 발전과 전망”, 『大韓政治學會報』 제7집 1호.
- 이정희, 구동희,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 2005.
- 마스다 다카유키 지음, 이상술 옮김, 『한눈에 보는 세계 분쟁 지도』 해나무, 2004.
- 이현경, “한반도 분단과 국가분리, 분단, 통일의 역사적 교훈: 이론적 함의와 사례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1호, 2016.
-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 우덕찬, “사이프러스 문제와 土耳其의 對美蘇關係(1964-1974),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우덕찬, “키프로스 문제의 歷史的 背景과 經過”, 중앙아시아학회편, 『中央아시아研究』 제8호 (2003).
- 우덕찬, “키프로스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편,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 2호(2008).
-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문학사상, 2005.
- Esmer, Ahmet, Sukur, “Cyprus Past and Present”, Turk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1962).
- Luke, Harry, Cyprus under the Turk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1).
- Ayoob, Mohammed, ed., Conflict and Interven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Croom Helm LTD, 1981).
- Bilge, Suat, “The Cyprus Conflict and Turkey”, Turkey’s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1950-1974, edited by Kemal H. Karpat(Leiden: E.J, Brill, 1975).
- Adams, Thomas & Cottrell, Alvin, Cyprus between East and West (Baltimore: the John Hopkins Press, 1968).
- Ehrlich, Thomas, Cyprus 1958-196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Bolukbasi, Suha, “The Cyprus Dispute and the United Nations: Peaceful Non-Settlement Between 1954 and 1966”,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30(1998).
- Evriviades, Marios L., “The Problem of Cyprus”, Current History, Vol.16 (January 1976).
- Azar, Edward E.,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Dartmouth: Hampshire, 1990).

〈신문 및 인터넷〉

『종교신문』 2015.10.7

『경향신문』 2006.4.12.

『연합뉴스』 2017.1.13

『세계일보』 2014.7.21.

『프레시안』 2016.11.29.

Tzimitras, Harry, and Mete Hatay(2016), “The Need for Realism: Solving the Cyprus Problem through Linkages Politics”,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10/turkey_2016_1005_cyprus_problem.pdf